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7호 【루계 제25911호】 주체107(2018)년 2월 6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이 되는 2월 8일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군대 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이 진보를 이룩하고 위력을 떨칠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계기에 즈음하여 우리 두 나라 지도부가 기울이고있는 공동의 노력이 수리아아랍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협조관계를 친선적인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와 리해관계에 맞게 강화해나가는데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원수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8년 2월 4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몽골 대외관계상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 대외관계상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드. 초그트바따르 대외관계상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백승만을 떨치는 조선인민군 만세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1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군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탁월한 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타승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가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와 김정일대원수, 존경하는 김정은원수의 령도아래 조선인민군은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들을 단호히 분쇄하였다.

조선인민군이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더욱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오늘 미제에게 실지공포를 주는 세계의 유일한 군대이다.

백승만을 떨치는 조선인민군 만세!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께와 김정일대원수,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제약공장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현판된 부문들에서 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기술수단들을 제때에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질좋고 효능이 높은 새로운 의약품을 연구개발하여 치료예방사업에 널리 리용할수 있게 하자면 세계적인 제약공업발전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을 나라의 제약공업부문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으로 꾸밀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루데이》,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인터네트홈페지 《주체-네팔》, 인디아의 인터네트통신 보이스오브 밀리언즈, 로씨야의 신문 《꿈바라슈》, 인터네트잡지 《렘위위》,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빠뜨리오띄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에스빠냐 바스꼬주체사상연구소조,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말기,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관》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산하 정당, 단체들이 1월 24일 련합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련맹과 련맹공산당을 위하여》국제사회련합 위원장인 보즈고보이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는 끼르기즈스딴공산당,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아제르바이잔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아협회 등 정당, 단체의 인사들을 망라하고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6돐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4일 로씨아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비서 돌가체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4일 전로씨아페넌공산주의청년동맹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비서 뽀드조로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4일부터 2월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꽁고준비위원회가 1월 25일 브라자빌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꽁고제 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 비딸 발라가, 부위원장으로 꽁고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쌍다장 노엘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좌담회,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대원수각하 탄생 76돐경축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준비위원회가 1월 25일 아부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들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좌담회,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을 깊이 새겨주어

평안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

평안북도안의 당조직들이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2월 8일을 조선인민군창건일로 의의있게 기념함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업적을 통한 사상교양사업과 다채로운 행사들을 의의있게 진행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에 큰 힘을 넣고있다.

우선 도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로동신문》을 비롯한 당적출판물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불멸의 업적과 의의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새겨주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당조직들이 당초급일군들, 당초급선전일군들을 발동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급기관 당조직들과 시, 군당조직들에서 학습강사의 날과 강연강사의 날에 강사들을 위한 강습을 잘 조직하여 그들의 실무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그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도급기관의 학습강사, 강연강사들은 주체적해군무력창설에 바치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진행하였다.

신의주시당위원회, 염주군당위원회, 철산군당위원회에서는 학습강사의 날을 계기로 강습을 잘 조직하였다.

당책임일군들이 직접 출연하여 강의방법을 배워주고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강철의 령장이시라는데 대한 강의를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이 창건된 력사의 2월 8일이 있어 오늘의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하여,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군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음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으며 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사업실천으로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한편 시, 군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에 대한 해설모임을 통하여 수령님의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 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먼저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도혁명사적관 강사들과 함께 올해농사차비로 들끓고있는 협동농장들에 나가 이동해설강의를 진행하였다.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 이어 장산협동농장에서 이동해설강의를 진행한 도당일군들과 도혁명사적관 강사들은 지금 도안의 시, 군들을 순회하면서 이동해설강의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이것은 시, 군당조직들이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에 대한 해설모임을 더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업적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에 5호담당선전원들을 적극 인입시켜 그 실효를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5호담당선전원들과의 사업에서 창성군당위원회가 모범을 보이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5호담당선전사업체계를 세워주신 60돐이 되는 올해에 5호담당선전원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줄 결심밑에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 그들과의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5호담당선전원들은 자기들이 담당한 농장원세대들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업적에 대한 해설선전을 실감있게 잘하였다. 이 과정에 농장원들모두가 맡은 일에서 성과를 거둘뿐아니라 더 많은 쌀과 고기, 남새와 버섯을 생산하여 인민군대원호사업도 잘해나갈 결심을 가지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창성군의 모범을 각 시, 군들에서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삭주군, 벽동군, 동창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의 수많은 5호담당선전원들이 농장원세대들에 들어가기도 하고 밭머리에서 농장원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격식없이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은 지금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많은 당조직들에서는 노래보급과 군중문화활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업적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진행하고있는 실속있는 사상교양사업은 건군절이 다가올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에 고무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건군절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제22차 김정일화 축전준비사업 활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제22차김정일화축전준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드높은 기상과 열정이 세차게 나래치는 격동적인 시기에 스물두번째로 열리게 되는 이번 축전은 김정일화명명 30돐을 맞으며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의의있는 축전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활짝 피여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2월 중순에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리게 될 이번 축전에는 무력기관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축전에 참가하게 될 단위들과 인민군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김정일화명명 30돐과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2월의 명절을 더욱 의의있게 맞이할 충정의 마음안고 축전장에 더욱 아름답게 피운 불멸의 꽃을 전시하기 위하여 온갖 지성을 바쳐가고있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는 2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축전준비사업을 품들여 진행하고있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집체적지혜와 정열을 합쳐 축전주제에 맞게 축전장총형성도안과 각 부분 장식도안들을 창작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축전참가단위들에 내려가 이번 축전을 위인홍보, 위인칭송의 대축전으로 더욱 빛내이도록 전시대제작과 꽃재배 및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시경영성, 대외경제성, 상업성, 교육위원회, 대외문화련락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김정일화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는데 힘을 넣는것과 함께 특색있는 형성안을 완성하고 그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시대를 준비하는 등 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제22차 김정일화축전과 때를 같이하여 각 도들에서 진행되는 김정일화전시회준비사업 역시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함경남도와 량강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온 나라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들에서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날이 갈에 따라 황홀한 꽃바다를 펼치고있다.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을 안고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도 축전준비에 뜨거운 지성을 기울이고있다.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에 발돋려 머지않아 성대히 개막되게 될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절세의 위인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더욱 뜻깊고 환희롭게 장식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룡

40여개의 예비채탄장을 확보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대동력기지의 화력탄보장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는데 큰 힘을 넣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지난 1월 31일현재 수천m의 굴진실적을 기록하여 40여개의 예비채탄장을 마련하였다. 이 기간 1월 기본굴진과 준비굴진계획을 각각 106%, 111%로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굴진과 박토를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굴진을 앞세우는데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굴진을 석탄생산에 확고히 앞세워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석탄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새해에 들어와 고속도굴진의 비중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각 탄광들에 고속도굴진돌격대들을 새로 조직하여 일별굴진실적을 지난 시기에 비해 부쩍 높여나갔다. 아래단위들에 내려간 당, 행정일군들은 사업총화와 탄광들에 대한 평가사업에서 굴진실적을 중요하게 따져보면서 성과를 확대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작전에 따라 모든 탄광들에서는 전망이 좋은 채탄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굴진전투가 그 어느때보다도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인포청년탄광의 굴진공들은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련일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하며 혁신의 앞장에서 나가고있다. 탄광에서는 3갱 380편도, 1갱 2사갱 250편도를 비롯하여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주요굴진개소들을 섬멸전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차광수청년돌격대를 비롯한 전투력있는 굴진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남력청년탄광의 고속도굴진소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전진속도를 높이고있다. 이들은 발파가스중화제를 도입하여 막장진출시간을 앞당기고 막대동발을 적극 받아들이며 굴진속도를 최대로 높이고있다. 10갱 고속도굴진소대원들이 단마구리에서 1월 25일현재 62m의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한것을 비롯하여 탄광의 모든 고속도굴진, 굴진소대 전투원들이 계획수행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회안청년탄광에서도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을 늘이도록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월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차광수청년돌격대, 5갱 집혁청년돌격대, 3갱 2소대, 1갱 1소대를 비롯한 고속도굴진공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을 이겨내면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갱의 석탄생산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송남청년탄광의 전투원들도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낀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김진청년돌격대를 비롯한 탄광의 고속도굴진, 굴진소대원들은 교대당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회안석탄탐사대의 일군들과 탐사대원들도 갱건설과 채탄에 석탄탐사사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전망이 좋은 탄맥들을 적극 찾아내기 위한 돌격투쟁을 벌려 월 시추굴진계획을 지난 1월 27일까지 110%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련합기업소아래 각지 고속도굴진, 굴진소대 전투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심학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마음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원산구두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인민군대를 영원한 수령의 군대로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 어느덧 일흔돐기의 년륜을 아로새기고있다.

70년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력사무대에 위풍당당히 등장한 조선인민군.

주체의 진군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뜻깊은 그날 혁명의 귀중한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국의 무궁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총대로 영원히 담보할 조선인민군의 열병대오가 총창을 비껴들고 발구름소리 드높이 열병광장을 행진해나가는 모습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 바치신 어머님의 충실성은 절대적인 신념이였고 숭고한 도덕이였고 일상적인 생활이였으며 어머님의 한생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가장 값높은 한생이였습니다.》

열병광장에서 정규적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열병대오를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있었다.

열병대오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시며 북받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곁에 서있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이렇게 심중을 터놓으시였다.

세계 그 어느 령장도 우리 장군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며 군대를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킨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인민군대는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가 되여야 할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안는 투사들의 얼굴도 눈물에 젖어있었다.

그들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조선인민혁명군을 해방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불패의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함께 새로 창건되는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김정숙동지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를 생각하며 가슴후더워오름을 금치 못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인 주체96(2007)년 12월 24일 김정숙동지의 탄생 90돐이 되는 뜻깊은 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총대를 끝없이 사랑하시였기에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수령님의 군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김정숙동지께서 평양학원과 군사학교들에 자주 나가시여 혁명무력핵심골간양성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추억하시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성장발전을 놓고 제일 기뻐하신분은 우리 어머님이시였으며 건군력사에 남기신 어머님의 공적은 참으로 큽니다.》** 라고 교시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건군력사에 남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공적중에서도 카장 큰 공적은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 조국과 인민앞에 내세우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신 이후 조성된 정세와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사업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자면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민족군대를 가져야 하였다.

미제가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전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날뛰고있는 조건하에서 강력한 인민의 군대를 가지는것을 조금도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시급히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건군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창건되는 정규적혁명무력이 명실공히 수령의 군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는데서 혁심골간이 될 군사정치간부들을 훌륭히 키워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성해주신 평양학원만 하여도 연 30여회나 찾으시였다.

지금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주체35(1946)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평양학원개원식에 참석하시여 하신 김정숙동지의 말씀이.

평양학원은 명실공히 새 조선의 민족간부를 키우는 장군님의 학교이다. 학원에서는 모든 교육과 교양을 철두철미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평양학원에서 자기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모든 교육내용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의것을 더 잘 가르쳐줄수 있게 구성하도록 하여주신분도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학원을 비롯한 여러 군사정치일군양성기관들의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에 대한 충정심을 깊이 심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창작되였을 때에는 평양학원 학생들이 대합창으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그날에 울려퍼진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의 송가, 그것은 총대로 수령님을 끝까지 받들어갈 이 나라 아들딸들의 신념의 메아리였다.

또 어느날에는 평양학원을 다시금 찾으시여 평양학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사상교양이며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야 모든 학생들을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정치간부로 준비시킬수 있다고 하신 김정숙동지.

그이께서는 평양학원 제3기생들이 졸업하는 날인 주체36(1947)년 10월 5일에도 학원을 찾으시여 학생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생들에게 우리 당의 핵심이며 인민군대의 정치간부들인 동무들에 대한 장군님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부대에 나가면 무엇보다도 모든 군인들을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우리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였다.

어찌 평양학원뿐이랴. 중앙보안간부학교에도 김정숙동지의 헌신의 발자취가 력력히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위업을 앞장에서 떠받들 기둥감들을 키워내는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도록 하신분도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우리식의 전법, 전술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여러차례나 교육강령을 지도해주시고 전술훈련장에도 나가시여 교원들과 학생들이 수령님의 공격전법과 통성시격의 전술을 비롯하여 우리 식의 명활한 전법과 전술로 무장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군대는 창건을 앞둔 때에 벌써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면모를 훌륭히 갖추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이후에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는 일이라면 항상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시고 헌신분투하신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그 나날 인민군대의 땅크부대와 비행대도 찾으시여 훈련을 보아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무력건설사상관철에로 일군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인민군대인에 강력하고 현대적인 기계화부대를 건설할 구상을 펼치시고 류경수동지에게 첫 땅크부대를 조직할데 대한 임무를 주시였을 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친히 류경수동지의 군복을 지어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하루빨리 땅크부대를 조직하여 무적의 철갑대오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후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부대에 자주 나가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에 맞게 땅크부대를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와주시고 땅크병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필기도구도 마련해주시였으며 만경대할아버님께서 가꾸신 잎담배를 가져다 땅크병들에게 안겨주시며 만경대일가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그들의 가슴에 깊이 심어주시였다.

우리의 땅크병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짧은 기간에 땅크운전기술을 소유하고 후날 수령님을 모시고 열병식까지 하게 된 기적은 바로 그렇게 마련되였다.

군보의 창간에도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손길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위업을 받들어나가시는데서 김정숙동지께서 각별히 관심을 돌리시신것중의 하나가 군보의 창간사업이였다.

주체37(1948)년 5월초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신문사에서 시험적으로 만든 신문을 보아주시였다.

그런데 신문을 보시는 그이의 안색은 밝지 못하였다. 일군들이 신문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다보니 신문의 편집형식을 남의것을 모방한데다가 내용도 우리 나라 군보로서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였던것이다.

김정숙동지로부터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자, 편집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강습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강습이 끝난 직후인 7월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신문사에 나가시여 강습진행정형을 알아보시고 인민군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로선을 해설선전하고 군인들을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신문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신문편집에서 주견을 바로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신문사에서 창간호발행준비를 다그치고있던 때에 또다시 신문사를 찾으시여 일군들이 만든 편집안을 보아주시고 신문에 소개할 내용들과 사진들에 대하여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수령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의 신문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살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처럼 군보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충정심과 세심한 지도속에 뜻깊은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차넘치는 수령님의 군보, 인민군대를 혁명적당군으로 키우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강화되게 되였다.

진정 해방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로선이 빛나게 관철되고 인민군대가 참다운 수령의 군대로, 불패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급속히 장성강화되게 된데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심혈과 헌신이 깃들어있다.

우리의 혁명무력이 걸어온 길도 영광스럽고 걸어갈 길도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창건된 첫날부터 오로지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며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며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 혁명적당군인 우리 인민군대의 때전력승의 력사와 더불어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공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최 유 일

투사들의 혁명정신을 지니도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혁명무력의 탄생과 그 강화발전력사에는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인민군부대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기 위해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나날에는 주체37(1948)년 2월 어느날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신 이야기도 수놓아져있다.

그날 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병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게 밤에 잘 때 춥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춥지 않다는 분대장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요를 손수 만져보시면서 군인들이 잘 때 춥지 않도록 새것으로 바꾸어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전사의 어깨우에 가볍게 손을 얹으시고 언제 입대하였는가, 고향은 어데인가를 알아보신 후 생활에서 곤난한것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애로되는것이 없다는 전사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왜 없겠는가고 하시면서 다른 군인들을 바라보시였다. 그들도 한결같이 곤난한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곤난한것이 없다는것을 보니 동무들이 솔직하지 못하구만라고 하시였다.

군인들의 마음은 저으기 긴장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군인들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곤난은 전진도상에서 있을수 있는 일시적인 곤난이라고, 우리는 모든 곤난을 용감하게 이겨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집도 없고 식량도 없는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하루이틀도 아닌 15성상 강도일제와 싸웠다고, 그들은 한자루의 총을 얻기 위하여서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으며 식량과 피복도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안광에서는 깊은 추억의 빛이 흐르고있었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항일유격대원들은 중첩되는 난관을 무엇을 가지고 이겨냈겠는가고 하시면서 그것은 오직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싸웠데 있다고, 그들은 이런 혁명정신을 가지고 곤난과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보충하면서 용감하게 싸워나아갔으며 싸워서 결국 이겼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는 군인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럴수록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을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이 가슴에 밀물처럼 안겨들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록 일시적인 곤난은 있지마는 지금 우리의 형편은 지난날과는 비할바없이 유리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당이 있고 인민주권이 있고 인민이 있으며 튼튼한 민주기지가 있다. 당과 국가에서는 인민군대에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군대를 적극 원호하고있다. …

군인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흥분에 싸여있는 군인들에게 동무들은 생활이 좋고 조건이 유리할수록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 강도 일제와 싸워이겼는가 하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알았습니다.》

군인들의 힘찬 대답소리는 병실을 쩌렁쩌렁 울리였다.

본사기자 김 성 남

잊지 못할 《밀림속의 병기창》이야기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투쟁할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전력사를 관통하고있는 철의 진리이다.

수십년전 《밀림속의 병기창》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겨주신것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광복거리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입에 의존하려는 많은 량의 설비와 마감건재, 건구들의 명세서를 보게 되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한동안 방안을 오가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밀림속의 병기창》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중심무대를 두만강연안으로 옮기셨을 때의 일이였다.

소왕청 마촌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도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어느 한 나라에 수류탄공장을 보내달라는 청원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그들은 거기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수류탄공장만 보내주면 조선혁명이 3~4년안에 승리할수 있을것이라고 하고있었다.

그러나 청원편지에 대한 대답은 침묵이였다.

누가 우리에게 수류탄을 거저 가져다주겠는가. 우리는 수류탄을 자체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것을 자력갱생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을 추동하는데서 결정적인것은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히시였다.

엄마후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마촌골안에는 크지 않은 철공소가 생겨났다. 그것이 바로 밀림속의 병기창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기창에 나가시여 우리에게 수류탄을 거저 가져다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유격대원들에게 수류탄을 가져다줄 사람은 오직 동무들의 두손뿐이다, 우리는 이 병기창에서 무기도 수리하고 화약도 만들고 수류탄도 만들어야 한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고 교시하시였다.

바로 그 병기창에서 화약이 제조되였고 일제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힌 유명한 연길폭탄이 제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연길폭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라고 교시하시였다고, 자신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내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연길폭탄을 생각하군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어느 한 전시장으로 나가시였다.

전시장을 돌아볼수록 일군들은 자책감으로 얼굴을 들수 없었다. 전시장에는 자력갱생의 창조품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수입에 의존하려던 설비, 자재들이 거의다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걸음을 다지는 그들을 고무해주시면서 전설을 방방 내밀수 있는 《밀림속의 병기창》이 많아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려주신 《밀림속의 병기창》이야기, 그것은 오늘도 우리모두로 하여금 자력자강에 모든 승리의 원천이 있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자력갱생의 상징인 연길폭탄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자.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신념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김 영 남 동 지 가
몽골 대외관계상일행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드. 초그트바따르 몽골 대외관계상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외무성 부상 리길성동지와 쑤펜긴 초그제렐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김 영 남 동 지 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골뜸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씨리쎄나각하

나는 스리랑카독립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적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2월 4일 평 양

백두에서 추켜든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전국청년동맹일군들의 맹세모임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전국청년동맹일군들의 맹세모임이 5일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전국청년동맹일군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대대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을 진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임으로써 청년동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튼튼히 꾸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하늘땅이 열백번 뒤집힌대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김정은제일결사대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였던 전세대 청년들처럼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3대전선에서 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세우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며 우리 제도를 좀먹는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들과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쓸어버리기 위한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 온 사회에 영웅청년문화를 활짝 꽃피워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동맹일군들이 전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동맹조직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꾸리며 청년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유능한 청년혁명학교 교원이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여 청년강국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슬기를 남김없이 발휘해나갈것을 맹세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백두산밀영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송시비앞에서 송시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새기며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백두의 기상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항일태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무비의 담력과 배짱, 슬기와 용맹을 키우신 어버이장군님의 천출위인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백두산밀영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고 지켜온 력사의 고향집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행군길에 올랐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적농업발전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자

사회주의전야에 과학농사열풍 휘몰아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4년이 되였다.

뜻깊은 이 아침 로작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새겨보는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카슴마다에 주체적농업발전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 세차게 끓어넘친다.

불멸의 대강이 밝혀준 다수확의 지름길따라 달음쳐온 그 나날 얼마나 많은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들로 믿음직하게 자라고 그 길에서 날로 높아나는 황금벌자랑은 또 그 얼마나 고귀하고 흐뭇한것인가.

세차게 타오른 종자혁명의 불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농업부문에서 종자문제를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종자문제해결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당의 뜻대로 종자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인민군대가 앞장에서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하며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에 맞고 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새 품종의 밭벼와 강냉이를 육종해내였다. 저 멀리 백두산기슭에서 전해진 새로운 다수확감자, 밀우량품종 육종소식이며 서해지구의 연백벌에서 풀퍼낸 정보당 10t이상의 논벼다수확을 담보하는 종자문제해결자랑은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망에 더욱 높이 올려퍼질 승전고의 장엄한 서곡이다.

과학농사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종자가공공장들을 건설하고 모든 종자들을 정선, 선별, 피복처리까지 종합적으로 하여 협동농장들에 공급하는 제도를 세울데 대한 당의 뜻이 눈부신 현실로 꽃펴났다. 함남, 평북, 황남을 비롯한 여러 도들에 건설된 현대적인 종자가공공장들과 가는 곳마다 일떠선 종자피복제생산기지들로 하여 종자가공의 공업화와 집제고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전국적으로 다수확품종배치체계가 더욱 정연하게 세워졌다.

북부고산지대로부터 서해벌방, 중간, 산간지대의 그 어느 농촌에서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만 놓고보더라도 안악군 오국, 염주군 남암, 함주군 동봉, 금강군 현리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농촌들에서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다수확우량품종을 배치하고 과학적으로 재배하여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특히 새로운 강냉이와 밭벼품종들이 널리 도입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고품군을 비롯하여 해발 400m이상의 고지대들과 저수확지들에서도 놀라운 다수확성과가 이룩된 소식은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밀, 보리를 정보당 3t도 못 내던 포전들에서 다수확우량품종을 널리 받아들여 평균 5t이상, 최고 10t을 수확함으로써 두벌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른 자랑은 또 얼마나 가슴뿌듯하게 하는가.

논벼, 강냉이, 밀, 보리, 콩을 비롯한 다수확우량품종배치면적이 해마다 늘어나 오늘은 전국적으로 90%이상,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의 마음을 엿볼수 있다.

활발히 전개된 다수확농법도입사업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영농방법들을 일반화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이다.

최근년간 각지 농촌들에서 우월한 다수확농법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다수확농법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농업성과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 과학농사열풍을 고조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마련되였다.

온 나라 협동농장들에 농업과학기술보급거점들이 빈틈없이 꾸려졌다. 농업성과 과학연구기관,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들을 콤퓨터망으로 련결하고 영농사업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실시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의대책할수 있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가 확립되여 활발히 운영되고있다. 합경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촌들에 기상관측장들이 꾸려져 눈짐작과 손짐작이 아니라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비배관리를 진행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여 실천투쟁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영농공정별기술전습회들과 기술경험발표회들이 해마다 실속있게 진행되여 도농촌경리위원장들부터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정확히 인식하고 도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과학농사분보기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바람이 휘몰아치는 속에 놀라운 다수확성과와 경험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논벼농사에서는 이른바모, 흰그루큰모, 영양알모 등 여러가지 앞선 벼모기르기방법들과 벼소식재배, 비강화재배방법이, 강냉이농사에서는 어려포기모아심기와 두줄모아심기에 의한 겹재배, 품종섞어심기, 이삭목찌르기, 오사리벗기기 등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여 다수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밀, 보리농사에서는 점과재배, 단지모재배기술, 감자농사에서는 긴싹모재배기술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여 각지 농촌들에서 진해진 두벌농사자랑은 또 얼마나 흐뭇한것이던가.

그뿐이 아니다. 벼, 강냉이잎자르기, 콩소식제배와 순치기방법 등 실리있는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들을 널리 받아들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넘쳐수행한 다수확단위들의 자랑도 누구나 기쁘게 되새겨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해온 4년!

참으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과학기술의 력으로 흥하는 농장과 작업반, 분조대렬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던가.

원쑤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자연재해가 련이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해마다 알곡생산장성성과를 이룩해가며 우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뼈속깊이 새긴 진리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풍년이 든다는것이다. 과학농사만이 살길이며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을 죽으나사나 끝까지 관철하는데 다수확의 열쇠,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는 바로 이것이다.

하기에 지금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승리의 기치로 더 높이 추켜들고 과학농사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농사에서 기어이 통장훈을 부를 신심드높이 당면한 농사차비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장 은 영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발양시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 기본은 분조장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이 분조장의 5가지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것이다.

최근년간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들은 하나같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분조의 역할을 높이는데 힘을 넣은 단위들이다. 이 단위들에서는 분조장들의 역할을 높이고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옳게 적용하여 농업생산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잘 짜고들었다.

배천군의 농사경험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군일군들은 분조장대렬을 잘 꾸리는것을 분조강화의 중요한 고리로 보았다.

일군들은 당에 충실하고 애국심이 높으며 기술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로 분조장대렬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 분조장의 5가지 임무에 충실하도록 교양하고 이를 어주어 분조장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군에서는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는 사업도 잘하였다.

포전담당분담을 놓고보아도 군에서는 농업근로자들에게 경지면적을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나이와 성별, 건강상태, 준비정도와 기술수준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때 지력상태와 담당포전까지의 거리 등도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리고 토지등급을 여러가지 조건과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견이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알곡생산과 수매계획을 정확히 세워주고 그 수행과 공동로동에 참가한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평가해주어 대중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결과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이 높아져 영농공정마다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강원도의 경우도 다를바 없다. 도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실정에 맞게 옳게 적용하였다. 특히 당의 요구대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였다.

지난해 낟알털기전투를 심에로 들수 있다. 전투를 앞두고 도일군들은 지난 시기 낟알털기에 들어가면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몇몇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생산의욕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원인은 일부 농장들에서 포전별로 농사결실이 차이난다는데로부터 년초에 계획한 분배안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기때문이다.

도일군들은 모든 시, 군, 농장 일군들이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온을 낼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잘 짜고든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편향을 극복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로부터 도에서는 낟알털기와 수매, 분배를 철저히 포전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이동식탈곡기생산을 선행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생산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고 포전에서 분배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여 대중의 생산의욕을 최대로 높이였다. 도일군들은 시, 군들에서 여러 분조, 작업반들을 시범으로 정하고 낟알털기와 수매, 분배를 포전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포전담당자들이 생산한 알곡가운데서 수매와 생산정상화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업근로자들에게 그들이 번 로력일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였던것이다.

결국 농업근로자들은 자기가 담당한 포전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더욱 분발하고 책임성을 높여나갔다. 이것은 곧 집단적혁신에로 이어졌다.

결과 도안의 전반적인 시, 군들에서 포전에서 낟알털기와 수매, 분배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낟알히심을 줄이면서도 지난 시기보다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런 사실들은 분조를 강화하고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옳게 적용할 때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분조장의 수준이자 알곡증산실적

곽산군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장들은 모든 농사일을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며 분조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국가의 전투명령으로 여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농촌들의 현실은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 문제해결에서 군일군들의 몫은 참으로 크다.

곽산군의 경우를 놓고보자.

군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고 생각이 깊어졌다. 우리 조국력사에 분조장대회가 열린것도 처음이고 분조장들의 임무가 상세히 제시된것도 처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주의농촌의 모든 일이 잘되게 할수 있는 기본열쇠는 분조장에게 쥐여져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일군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그리고 분조장의 5가지 임무에 비추어 옳은 방법론을 찾아 실천에 옮기였다.

무엇보다도 분조장들을 당의 농업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로, 농사일에 정통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을 소유한 새 세기의 진짜배기실농군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첫자리에 놓았다. 그것은 이 사업을 떠나서 분조의 집단적혁신도 과학농사성과도 기대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주체농법강습을 틀어 실속있게 진행한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군일군들은 관리위원장이나 작업반장들만 참가시키던 지난 시기 강습과는 달리 모든 분조장들을 다 참가시켰다.

우선 선진영농방법과 관련한 다매체편집물을 틀어 마련하고 그를 통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지난 시기 다수확농법을 받아들여 많은 알곡을 증수한 분조장들의 경험과 교훈적인 자료들을 적극 안받침하였다.

특히 잘한것은 강습에 모범적인 분조장들을 출연시킨것이다. 여기서는 지력을 높이고 다수확우량품종을 받아들여 알곡수확고를 높인 와도협동농장 분조장의 토론이 인기를 끌었다.

이 분조에서는 옮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를 리용하여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인 결과 많은 알곡을 증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분조장의 실력이자 분조의 알곡생산실적이다. 강습참가자들은 이것을 뼈에 새기게 되였다. 모든 분조장들속에서 앞선 분조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농법을 받아들여야 알곡을 증수할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서게 되였다. 이와 함께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려는 열의가 높아지는것이 눈에 띄게 알렸다.

일군들은 분조장들의 지휘능력문제를 중시하였다. 그에 의하여 분조의 전투력이 강한가 약한가, 또 영농공정별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가 크게 좌우되기때문이였다. 이를 위해 모든 군급기관 일군들이 한개 분조씩 담당하고 책임지게 하였다.

특히 분조장들을 강한 집행력을 지닌 손락이 센 초급일군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분조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분조장들과 일도 같이하면서 분조장의 임무를 강조해주고 대중을 분발시키는 묘술도 배워주면서 그들의 사업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다. 또한 걸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농장원들의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주어 그들이 분조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분조원들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 존경받으며 《우리 분조장》으로 불리우고있는 분조장들의 경험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반화하였다. 결국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분조장들이 모든 면에서 앞장에 선것만큼 농장원들이 보폭을 맞추며 집단적혁신의 불길,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일군들이 이 사업을 얼마나 빈틈없이 작전하고 내밀었는가 하는것은 지난 시기 소문없던 통상협동농장 청년분조를 비롯한 많은 분조들이 지난해농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여 오늘날에는 앞선 단위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된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군일군들의 노력은 이렇듯 좋은 결실을 안아왔다.

군일군들의 경험은 이렇게 시사해주고있다. 분조장의 수준이자 알곡증산실적이다.

본사기자 김 강 철

농사차비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사리원시 비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다수확운동의 선구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장들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농촌핵심이며 분조농사와 관리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농촌의 초급지휘성원입니다.》

분조장들이 자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당의 농업정책이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발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전야에 애국의 땀을 묻어가는 사회주의농촌의 분조장들, 그들속에는 다수확운동의 앞재를 메고나선 선구자, 기수들이 수없이 많다.

증산경쟁운동의 기수가 되여

곡산군 덕흥협동농장 제5작업반은 중산간지대에 위치하고있다. 최근년간 이 작업반의 모든 분조들에서는 벌방지대 못지 않게 다수확을 내여 전국에 소문이 났다.

성과의 비결은 분조별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있다.

우선 몇분조라는 수자를 통해 곧 그해 분조별알곡생산순위를 알게 함으로써 분조장들의 경쟁심을 최대로 고조시킨것이다. 작업반안의 그 어느 분조에 가보아도 분조장들의 경쟁열의는 대단하다.

정보당 알곡생산순위이자 분조순위로 되고 또 어느 분조에서나 1분조를 따라앞서기 위한 맹렬한 추적전이 벌어지는 속에 작업반은 나날이 비약하였다.

결과 분조들의 순위를 론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라고 한다.

분조원들은 또 그들대로 개인별, 작업조별로 서로 따라앞서고 따라배우기 위한 경쟁열로 하루하루를 맞고보냈다.

과학농사열풍의 앞장에서

대동군 고산협동농장 관리일군가족분조원들은 늘 바쁘게 뛰며 앞선 영농방법들을 이악하게 받아들여 최근년간 다수확을 내고있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분조장 김선복동무가 서있다.

몇년전에 조직되여 농장적으로 지력이 낮은 땅을 받아안은 김선복동무와 분조원들은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남전들 못지 않게 한몫 단단히 할 결심을 가지였다. 그런데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높은 소출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였다.

작업반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오늘날 분조장들은 한목소리로 말하고있다. 분조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증산경쟁운동에서 앞장선다면 다수확을 거둘수 있다고.

그후부터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앞선 영농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악하게 노력하는 분조장의 이신작칙은 분조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들로 키우는 밑거름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강냉이여러포기모아심기방법과 논벼삼각재배방법 등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과정에 분조는 최근년간 강냉이 정보당 20t이상, 논벼 14t이상의 높은 소출을 내고 다수확분조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친혈육의 정과 사랑으로

와우도구역 대대남새전문협동농장 농산제2작업반 1분조는 해마다 분조앞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분조원들모두가 혁신자로 영예떨치는 분조이다.

그 밑거름은 분조원들에게 친혈육의 정과 사랑을 쏟아부으며 앞장에서 그들을 이끌어온 분조장 김경옥동무의 진정이였다.

한 제대군인분조원을 위해 살림집도 잘 꾸려주고 그의 생활조건을 놓고 늘 마음쓰며 구석구석 돌보아준 일, 자주 앓군 하는 모판관리공의 건강을 위해 갖가지 보약재와 식료품을 마련해주던 일…

누구나 혁신자가 되여 앞장서 달리고있는 오늘 분조원들은 말한다. 분조가 화목하고 일 잘하는 집단이 된것은 우리 분조장의 친혈육과도 같은 정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어찌 이들뿐이랴.

사회주의협동벌 그 어디를 가보아도 길보기에는 소박하고 평범하여도 당의 농업정책관철의 앞장에서 헌신하고있는 정열가, 진짜배기실농군들을 만나볼수 있다.

다수확운동의 앞장에 선 미더운 농촌의 선구자, 기수들이 많아 북반은 사회주의대지는 해마다 풍요한 가을을 노래하며 황금벌자랑만을 펼쳐놓을것이다.

감 금 성

주도세밀한 작전과 교양사업의 실효

연탄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대성교양을 강화하는데서도 작전이 중요하다.

작전에 틀을 들이는것만큼 위대성교양사업의 성과가 담보되고 좋은 결실이 나지는 법이다.

이런 견지에서 놓고볼 때 올해에 혁신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발휘하고있다고 평가할수 있는 일군들이 있다. 연탄군당위원회 일군들이다.

깊은 사색과 연구를 안받침하면서 위대성교양을 위한 작전무대 주도세밀하게 세워나간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주요한 특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타산을 면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고 믿음성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위대성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당책임일군의 안목이 넓고 요구성이 높아야 한다.

리항겸군당위원장은 주관부서인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위대성교양과 관련한 작전을 세우는데서 만족을 모르고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였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위대성교양을 위한 년간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였다.

그대로 내밀게 될것이라고 일군들은 간주하였다. 왜냐면 지난해에 위대성교양을 위한 참신한 방법들이 적극 활용되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들로 키우는 사업에서는 물론 군꾸리기와 지방공업공장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모든 면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나타났기때문이였다.

지난해 가을 사상교양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중앙적으로 열린 한 회의에서 군당의 한 일군이 경험토론을 한것은 결교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일군들의 생각은 빗나갔다. 군당책임일군은 지난해의 작전으로 아무리 큰 소득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되며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창발적으로 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고 작전을 더욱 주도세밀하게 하자. 그리하여 올해의 위대성교양에서 보다 큰 실효가 얻어지게 하자.

군당책임일군은 이런 자각과 열의를 안고 해당 일군들이 위대성교양을 위한 작전수립에 열배, 백배의 품을 들이도록 하였다.

잡도리를 다시 하고 달라붙으니 작전안에서 심화시키고 완성시켜야 할 점들을 찾아내게 되였다.

군당책임일군이 일군들의 창조적사색을 적극 계발시키고 필요한 협의도 진지하게 진행하도록 한 결과 혁명적인 총공세가 벌어지는 올해에 위대성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작전안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세워지게 되였다.

거점을 통한 교양 특히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통한 교양을 보다 실속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것은 군당위원회의 작전안에서 우선적으로 느끼게 되는 문제이다.

이미전부터 이곳 군당위원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들을 잘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전문적으로 벌려왔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통한 교양에서 기본을 혁명력사도록을 통한 교양으로 정하고 도록학습에 각별한 힘을 넣어왔다. 연구실관리원들이 혁명력사도록내용을 깊이 체득한데 기초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리용하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록해설을 잘 진행하도록 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령도, 풍모가 집대성되여있는 혁명력사도록을 통한 위대성교양의 감화력이 얼마나 큰가를 실천을 통하여 깊이 절감한 군당위원회에서는 올해에는 그 사업에 학습강사들을 광범히 인입하고있다. 그들이 혁명력사도록의 내용을 환히 꿰들고 학습강령에 따르는 도록해설강의를 실효성있게 진행할뿐아니라 임의의 강의시작전에도 도록해설을 짧은 시간에 통속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모든 강의들을 위대성교양으로 일관시킬것을 예견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올해의 첫 학습강사의 날 운영때에도 현지에 나와 학습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정중히 전달하고 위대성교양을 격식과 틀이 없이 심금을 울리게 진행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면서 학습강사들을 분발시켰다.

분담식학습경연을 하나 조직해도 절세위인들의 유훈학습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것도 군의 위대성교양작전에서 눈길을 끄는 점이다.

올해신년사에 대한 분담식학습경연을 조직하면서도 군당위원회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현지지도사적이 뭇뭇에 어려있는 군의 실정에 맞게 유훈을 조항조항 깊이 새기기 위한 학습을 동시에 내밀도록 하였다. 분담식학습경연을 통하여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 체계와 내용을 환히 꿰들뿐아니라 군의 오늘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교훈과 심혈,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도록 한것이다.

이밖에도 한 협동농장의 작업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본보기를 창조하게 한 다음 그 모범을 따라 누구나 병풍식으로 된 작고 간편한 위대성교양자료를 늘 작업복주머니에 넣고 일터에 나가 원창에 활발히 리용하도록 할것을 예견한것을 비롯하여 작전안에 반영된 혁신적인 측면들은 많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작전안을 실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서도 기수적위치에 확고히 서서 《나를 따라앞으로!》의 웨침을 힘차게 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무한한 격정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조직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각 부서 일군들이 정초에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안의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위대성교양사업으로 대중을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추동한 사실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그들을 따라 군안의 모든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 당초급선전일군들이 발동되여나섬으로써 온 군이 위대성교양의 활무대로 전변되고 만리마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주도세밀한 작전으로 년초부터 위대성교양의 실효를 최대로 높여나가고있는 이들의 올해사업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리 정 수

다시마생산량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 증가

황해남도수산관리국산하 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서

황해남도수산관리국산하 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서 다시마생산전투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양식을 활성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을 높이 받들고 바다나물생산전투에 진입한 사업소들의 로동계급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의 다시마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은 바다나물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다시마양식에 힘을 집중하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높여주는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지난해 흐뭇한 다시마작황을 마련한 부로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올해에 더 많은 다시마를 생산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밑에 양식장면적을 늘이고 공정별에 따르는 모든 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갔다.

이곳 종업원들은 부착줄당 다시마모의 포기수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앞선 속음생산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륙설비들을 만가동함으로써 매일 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

옹진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도 변화되는 날씨조건에 맞게 다시마모가 빨리 자랄수 있는 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끝배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부림속도를 최대로 높여 많은 다시마를 수확하고있다.

사업소들의 보장부문 로동계급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배, 바줄, 띄우개 등을 제때에 생산하고 각종 부속품가공을 확고히 선행시켜 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도수산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다시마를 생산할 열의드높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세기를 이어 울리는 장백의 물방아소리

우리 인민의 원군력사의 첫페지를 번지느라면 유정하게 울려오는 소리가 있다. 장백의 물방아소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장백땅에 걸어놓은 수십개의 크고작은 물방아들중에서 원군사업과 인연이 없는 물방아는 거의나 없었다. 물방아는 전인민적원군사업의 상징으로 나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우리가 백두산을 거점으로 오랜 기간 항일전쟁을 할수 있었던것은 장백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의 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물방아는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잊지 못해하신 장백의 물방아소리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세기를 이어 울리는 장백의 물방아소리, 거기에 담겨진 력사의 진리는 무엇인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손에 무장을 잡고 떨쳐나선 조선인민혁명군을 바다속의 좀쌀알에 비유하였다.

사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의 백만 관동군에 비해볼 때 수적으로나 무장장비에 있어서 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항일무장투쟁을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힘껏 떠받들어주는 대양과도 같은 인민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장백현에 산 조선사람치고 원군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지팽이를 짚고서야 바깥출입을 하는 로인들도 산속에 들어가 피나무껍질을 벗겨다가 유격대에 보낼 신을 삼았고 녀인들은 밀정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추운 겨울밤 불도 피우지 못한채 번갈아 보초를 서가며 방아를 찧었다.

일제가 항일유격대로 쏠리는 민심을 막아보려고 유격대와 내통한자는 총살한다는 내용의 서슬푸른 경고장을 도처에 내붙이며 수상한 기미가 보이는 마을들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었으나 쌀과 천을 이고지고 백두산밀영으로 파도처가는 인민들의 거세찬 흐름을 막을수 없었다.

망국민의 설움과 눈물만을 자아내던 장백땅의 구슬픈 물방아소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으로 진출한것을 계기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일제히 항거하는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의 함성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원호를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최선의 방도로, 최상의 락으로 여기며 그 길에서 겪는 고생은 물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장백인민들, 유격대를 도와주다가 적도 범대에게 붙잡혀 총살당하면서도 마지막순간에 《우리 군대를 잘 도와주우. 그래야 새세상이 빨리 온다니까.》라는 절절한 당부를 남긴 한 로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이렇듯 순결하고 열렬한 인민의 지지가 있었기에 항일유격대는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차디찬 눈우에 가랑잎을 깔고 자면서도 반일항전의 피어린 투쟁을 굴함없이 벌려 조국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안아올수 있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장백의 물방아소리,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폭풍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넋이 어린 그 장엄한 메아리는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을 때마다 더 높이, 더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동령의 승리방아를 찧으며 싸우는 고지의 인민군용사들을 최생적으로 도와나선 후방인민들의 투쟁도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빛나는 원군전통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우리 조국땅에는 원군의 대하가 더 거세차게 흘렀다.

생활상어려움이 많아질수록 자기 가정보다 전호가의 인민군군인들을 먼저 생각하며 한점한점의 원호물자들을 피나게 모아 조국의 방선초소들로 보내준 각지의 인민들, 우리 당이 조국과 인민앞에 높이 내세워준 원군미풍열성자들모두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못 잊어하신 장백의 물방아소리가 아니였던가.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나아가는 혁명의 전진가, 승리의 북소리와도 같은 장백의 물방아소리를 심장깊이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이였기에 누구나, 어느 가정에서나 원군을 최대의 애국으로, 제일가풍으로 여기며 인민군군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다지는 성스러운 원군길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준 영웅적 조선인민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날 총대가 약해 식민지민족의 쓰라린 고통을 체험한 우리 인민은 군대를 위한 일, 국방력을 다지는 사업이라면 온넋을 쏟아붓고 가산을 통째로 들이민다 해도 기쁘고 자랑스럽게만 여긴다.

인민군군인들을 위하는 인민의 정은 또 얼마나 지극한가.

뜻밖의 일로 중태에 빠져 구급차에 실려온 인민군군인에게 자기의 피와 살, 뼈를 바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화폭들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인민들이 삶 집을 지어주면서도 인민에게 자그마한 피해라도 줄세라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고 선언한 군인건설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끝에 얼음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건설장으로 달려와 《이건 녹으면 물이 된다네. 그러니 어서 들라구.》라고 안타깝게 호소한 북변땅녀인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가.

군대에게 바치는 우리 인민의 지성은 실사 한고후의 물, 한통의 편지라고 해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군인들의 심장속에 애국의 불을 펄펄 피워올리며 멸적의 용단을 만단장해주기때문이다.

군대가 약하면 망국노가 된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바로 이것이 세기를 이어 울리는 장백의 물방아소리에 담긴 력사의 진리이며 우리 인민의 삶의 신조이다.

이런 금힘없는 삶의 신조를 안고 사는 인민이 있는 한 조선인민군은 언제나 필승불패할것이다.

본사기자 허 명 숙

포화속에서 더욱 높이 발휘된 원군미풍

남 강 마 을 녀 성 들

우리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생사를 판가리하는 탄우속을 뚫고 불타는 고지에로 오르던 남강마을녀성들을 원군의 자랑으로 내세우고있다.

총소리, 포소리만 듣고도 적아를 분별할줄 알았다는 남강마을녀성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원군열의가 얼마나 드높았는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1951년 초여름 식량과 탄약을 실은 소달구지를 몰고 1211고지로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늘에서는 적비행기들이 미친듯이 폭탄을 떨구고 기총사격을 퍼부었지만 그에는 아랑곳없이 고지로 오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전선원호를 잘하기로 소문난 금강군 속사리 인민들이였다.

식량과 탄약을 싸우는 고지에로!

1951년 여름, 례년에 없이 크게 진 장마에 남강이 넘쳐나 수송로가 끊어지게 되였을 때였다.

남강마을사람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두 아들을 전선에 내보낸 한 녀성은 자기 집에 있던 장농을 뜯어내오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가 있고야 집도 장농도 필요하지 않겠소.》

그의 뒤를 따라 남강마을 녀성들은 집에서 쓰던 탕반널과 이불장까지 뜯어내여 때와 때를 무었다.

그것마저 마사지면 사품치는 강물에 뛰여들어 원호물자들을 중단없이 운반하였다.

하기에 남강마을녀성들의 뜨거운 지성이 담긴 주먹밥과 탄약, 포탄을 받을 때면 고지의 전사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후방인민들의 절절한 부탁을 느끼였고 조국의 고지를 지켜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웠다.

1211고지용사들과 한전호에서

적탄이 비발치는 위험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고지에서 싸우는 인민군전사들만을 생각하였다.

고지의 전투원들이 탄약이 떨어져 돌을 쌓아놓고 결사전을 준비하고있을 때 탄약을 이고지고온 사람들도, 목숨을 내대야 하는 전투장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식사를 보장한 사람들도, 력량상 우세한 적들로 하여 고지에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서슴없이 총을 쥐고 멸적의 총탄을 날린 사람들도 다름아닌 속사리인민들이였다.

그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고지의 인민군전사들에겐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고 적들에겐 공포와 전률을 더해주었다.

승리의 날을 앞당겨

지금도 우리의 눈앞엔 전시 후방인민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이 숭엄히 어려온다.

락동강의 할아버지, 금강의 새 동서, 인민군부상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쏟아지는 적탄을 몸으로 막은 이포리의 농민, 농민들로 조직된 담가대와 상감령지구의 전선위문대, 부상병위문대, 나어린 학생소년들로 조직된 《소년전선원호대》…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항일의 빛나는 원군전통을 계승하여 자랑찬 전선원호활동으로 승리의 날을 앞당겨온 그들을.

그들은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조국앞에 위험이 닥쳐왔을 때는 한몸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참된 애국자들이였다. 하기에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들의 영웅적위훈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장백의 물방아소리, 적동령의 승리방아소리 높이높이 울려갈 때 조국은 더욱 강대해지고 우리의 생활은 더욱 아름다와진다고.

김 국 철

사회주의대가정의 가풍

최 대 의 애 국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장 김성철동무의 가슴속에는 철령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넘고 넘으시였던 철령, 이 최전연초소에서 한생에 잊지 못할 그의 병사생활의 하루하루가 흘렀다.

조국의 안녕지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호가에서 밤을 새우고 날먼저 해돋이를 맞으며 그가 새겨안은것은 무엇이였던가.

보람찬 삶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어머니조국의 귀중함이였다.

조국이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도,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있음을 그는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며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은 없다.

이런 마음을 안고 그는 근 10년전부터 원군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몇해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 그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김성철동무의 가슴속에서는 원군사업을 더 힘있게 벌릴 결의가 끓어번지였다.

대 를 이 어 가 며

구장군 읍 167인민반에서 사는 리경애동무는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을 자주 되새겨보군 한다.

《나라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원호의 길에서 숨을 거둔 외할아버지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해주었다. 우리는 외할아버지가 걷던 그 길을 꿋꿋이 이어가야 한다.》

그 당부를 안고 리경애동무와 남편인 권수환동무는 해마다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장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건투장, 려명거리건설장…

그러면서도 그들부부는 자식들을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아는 참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늘 마음을 썼다.

그들부부의 웅심깊은 마음에 떠받들려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학습과 조직생활,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와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맏아들이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수여받았을 때 이들은 거듭 안겨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자식들이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간직한 충정의 꽃으로 활짝 피도록 더 잘 이끌어주리라 마음다지였다.

본사기자 김 진 욱

수필 옛 대대당위원장의 추억

전화의 포연탄우를 피로써 헤쳐온 로병의 추억은 깊어만 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한동수전쟁로병에게는 뜨거운 사연도 많고 잊지 못할 사람들도 많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민이 단결하여 싸우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자랑입니다.》

흙보다 탄피가 더 많이 밟히던 60여년전 그날의 전장에 선 로병의 추억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전쟁의 첫해 재진격시기를 돌이켜볼 때면 정북도사람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조선전쟁을 조속히 끝내려는 야망에 들뜬 때아닌 전군이 압록강을 향해 돌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성된 사태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적들을 38°선이남으로 몰아내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출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의 전략적방침을 받들어 로병이 소속된 대대도 구성으로 출발하였다. 출발과 동시에 또 하나의 명령이 떨어졌다.

대대군인들은 100% 삽과 곡괭이를 휴대할것!

구성을 누가 먼저 차지하는가 하는것은 어느속이 먼저 방어공사를 끝내는가에 달려있었던것이다. 출발시간은 박두하였다. 대대당위원장이였던 로병은 삽과 곡괭이를 전량 해결해가지고 인솔따라서겠다며 대대를 떠났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정복땅은 생소한 곳이였다. 그는 금보로 내달렸다. 달리다 보이는 부락, 만나는 사람족족 그는 부락하였다.

《한시간내로 소달구지에 삽과 곡괭이를 실어 저기 큰길에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미처 말하기도 전에 로인도 아이어머니도 처녀도 그와 똑같이 내달렸다. 그들에게 명백한것은 그것이 군대에게 필요하다는것이였다.

다음부락, 또 다음부락… 마지막부락에서 삽과 곡괭이를 가득 실은 달구지를 몰고 큰길가에 나섰을 때 대대당위원장은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망막을 가리웠다. 30세도 넘는 소달구지대렬이 길을 꽉 메우고 있었던것이다.

마을의 당조직이나 인민위원회를 먼저 찾아간것도 아니였다. 그 어떤 요란한 신분증을 내보인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그가 오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가 손을 들면 달리던 차도 멈춰섰다. 리유는 단 하나 그가 군대이기때문이였다. 실로 군대와 인민사이엔 명령이 필요없었다.

《그 정북도사람들은 나에게 이름석자 대주지 않았소. 그런 인민이 바로 싸우는 우리 병사들의 뒤에 있었습니다.

당의 두리에 한마음으로 뭉친 인민과 그 인민의 아들딸들인 군대가 한덩어리가 되어 일떠서던 그 어떤 대적과도 싸워 반드시 이깁니다. 보병총과 권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가 이것을 증명하고있지요.》

원군사의 갈피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새겨져있는것인가. 저 하늘의 별처럼.

전쟁로병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머리속에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한 구절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졌다.

우리의 근간도 민중속에 우리의 힘도 민중속에 있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우리 예술단 평양 출발

【평양 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문화성 국장 권혁봉동지와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현송월동지가 이끄는 우리 예술단이 남조선에서 열리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축하공연을 위하여 5일 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박광호동지, 김여정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문화성 일군들이 예술단을 전송하였다.

예술단은 렬차로 원산까지 이동한 후 《만경봉-92》호를 타고 남조선을 방문하게 된다.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동지가 몽골 대외관계상일행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동지는 5일 의례방문하여온 드. 초그트바따르 몽골 대외관계상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외무상과 몽골 대외관계상사이의 회담 진행

외무상 리용호동지와 드. 초그트바따르 몽골 대외관계상사이의 회담이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대외관계상일행과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갈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

리용호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몽골의 선대지도자들과 마련하여주시고 발전시켜주신 전통적인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계속 발전풍부화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드. 초그트바따르 대외관계상은 올해는 두 나라 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쌍무관계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를 좋게 발전시켜나갈데 대해 언급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이 수여되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들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지식인들이 참가하였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연구사 리승익동지에게 원사칭호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들인 리명일동지, 허탈윤동지, 연구사 신태정동지, 농업성 농기계연구소 연구사 박만성동지 등에게 후보원사칭호가 수여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들인 원철국동지, 리동윤동지, 교원 로승일동지, 실장 리성호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들인 한천일동지, 박기창동지, 소장 백은영동지, 평양건축종합대학 강좌장 김석봉동지, 조선체육대학 부학장 김해천동지, 국가과학원 실장 오유성동지, 평북종합대학 제2사범대학 부학장 문정지동지,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교원 원예언동지가 교수의 학직을 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들인 금철룡동지, 리현철동지, 부강좌장 리찬문동지, 교원들인 김성희동지, 서광식동지, 연구사들인 리광철동지, 박세옥동지, 윤순철동지, 김영진동지, 과학부원 신윤섭동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지도교원 라진명동지, 교원 류성일동지, 연구사 어순옥동지, 김형지사범대학 지도교원 라영남동지, 교원 리수일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들인 라영철동지, 현별이동지, 전성수동지, 소장 송억철동지, 실장들인 한성혁동지, 최덕기동지, 김광철동지, 교원들인 김수현동지, 정학철동지, 박영철동지, 김태호동지, 최성근동지, 정현일동지, 지영희동지, 연구사들인 차용섭동지, 림지성동지, 평양건축종합대학 강좌장 박성숙동지, 연구사 김서인동지, 리과대학 강좌장 리영철동지, 실장 맹항렬동지, 교원 정찬혁동지,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총장 문동기동지, 연구사 김연환동지, 평양외국어대학 교원 김병옥동지, 평양미술종합대학 소장 남위동지, 조선체육대학 강좌장 왕진혁동지, 철도성탕학교 교원 홍정옥동지, 평양판광대학 강좌장 김창하동지, 국가과학원 부국장 신광일동지, 부소장 주정호동지, 부원 장정송동지, 실장들인 손경수동지, 리상혁동지, 리충일동지, 조희철동지, 연구사들인 김유성동지, 최혁일동지, 서홍철동지, 안은철동지, 오경일동지, 차광혁동지, 김강석동지, 김승제동지, 잔디연구분원 부원장 고성제동지, 만수대창작사 기사 조영실동지, 농업연구원 소장 김광옥동지, 부소장 한윤철동지, 의학연구원 연구사 김광호동지, 로동신문사 혼설위원 동태관동지, 부장 리동찬동지, 국토환경보호성 연구사 리문혁동지, 도시경영성 실장 권근동지, 전력공업성 키술원 최혁동지, 제신성 실장 김명훈동지, 김만유병원 부원장 안광권동지, 평북종합대학 차광수제1사범대학 연구사 박광철동지, 신의주외국어학원 분과장 최경수동지, 평안북도인민병원 소장 박성완동지, 김제원해주농업대학 강좌장 김성호동지, 황남공업대학 강좌장 박금성동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기사장 윤성철동지, 원산사범대학 부과장 조홍국동지,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강좌장들인 김태식동지, 최상철동지, 지도교원 리윤일동지, 교원 문영청동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연구사 김성희동지, 함경북도소아병원 원장 문동일동지 등에게 박사의 학위가, 160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1 082명에게 석사의 학위가 수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국가비상재해위원회와 몽골 국가비상사태관리총국사이의 호상협조에 관한 량해문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상재해위원회와 몽골 국가비상사태관리총국사이의 호상협조에 관한 량해문이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인되였다.

국가비상재해위원회 위원장 강일섭동지와 드. 바드말 국가비상사태관리총국 총국장이 량해문에 수표하였다.

물고기잡이에서 집단적혁신을

김책수산사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김책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수산전선에서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이들은 사나운 날바다를 헤치며 정초부터 힘찬 돌격전을 벌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4배의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은 드넓은 어장을 전투화지로 정하고 어창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맞게 어로공들의 앙양된 투쟁열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갔다.

1선단의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앞장서고있다.

오늘의 어로전은 곧 당정책옹위전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어로공들은 불리한 어황조건에서도 어군탐색을 과학적으로 하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배일물고기잡이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2, 3선단의 어로공들도 합리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이고 집중투망, 련속투망을 틀어대여 기망당 어획고를 부쩍 높임으로써 선창마다에 물고기가 차넘치게 하였다.

가공직장의 로동자들은 물고기를 잡아오는족족 하룩, 가공, 보관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렸으며 공무동력직장의 로동자들도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물고기잡이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비상히 앙양된 어로공들의 투쟁열의에 맞게 사업소에서는 어구와 연유, 후방물자보장대책을 빈틈없이 따라세워 현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였다.

김책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물고기잡이성과로 빛내일 일념안고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친혈육인들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호전된 저의 건강상태를 두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남의 부축없이 없으면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던 제가 지금은 제발로 일어나 걷고있습니다.

저의 병치료를 위해 정성을 다하던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저는 저의 병을 두고 친부모보다 더 속을 태우며 밤늦도록 입원치료문제를 의논해주던 시당일군이며 동초급당위원장동지의 진심어린 그 모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저의 집에 찾아왔던 그들은 저의 몸상태를 어느새 헤아려보고 그 즉시로 저의 병치료를 위한 긴급토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평양으로 떠나던 그때까지만 하여도 집걱정이 없어야 병치료가 더 잘될수 있다고 하면서 저의 집살림을 전적으로 맡아안은 그들의 웅심깊은 진정을 다는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영예군인입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해빛밝은 살림집을 먼저 마련해주고 사소한 걱정이라도 있을세라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의 일군들, 오랜 세월 친혈육이 되여 진정을 바치는 시인민보안부의 장윤미동무를 비롯한 고마운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바래울 때면 내가 얼마나 좋은 제도, 아름다운 사람들속에서 살고있는가 하는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납니다.

진정 제대되여 지금까지 10여년세월 그 하루하루는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매일, 매 시각 온몸으로 체험한 나날이였습니다.

이 귀중한 조국을 위해 저는 언제나 마음속군복을 벗지 않고 혁명의 불을 계속 피워나가겠습니다.

해주시 광하동 26인민반 홍 명 남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공화국의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 조직들 성명, 담화들을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월 30일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을 받아안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가슴은 무한한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이 호소문을 받들고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해 온갖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애국애족의 화신이시며 불세출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절세위인의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을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마음으로 적극 지지하고 실천해나갈것이다.

우리들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높이추켜들고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갈것이며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한사코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우리들은 찬란한 민족의 래일을 굳게 믿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 대사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또한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과 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대변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담화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에 따라 얼어붙었던 북남관계에서 날이 갈수록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심장을 통일애국에 대한 새로운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각 동포단체 일군들,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선민족의 운명과 천만년미래를 화고히 담보해주는 공화국의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병진로선을 적극 지지옹호하며 외세와의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련대투쟁에 특색있게 이바지할것이라고 담화들은 밝혔다.

담화들은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내 나라, 내 민족을 뜨겁게 품어안으시고 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시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은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고약한 속심

일본수상 아베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아베는 그에 대해 공개하면서 자기가 남조선집권자를 만나 《대북압박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는 원칙》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되며 인도주의적협력은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데 대해 명확히 전달할것이라고 고아댔다. 그러면서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와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추가조치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것과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는데 대해 피대를 돋구었다.

이쯤하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문제를 놓고 국회일정 등을 구실로 이 피랄 저 피랄 대며 남조선당국을 회롱하던 아베가 갑자기 참가의향을 내비친 교활하고 음흉한 속심을 알수 있다.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를 더한층 강화하려는것이다.

실제로 아베패당은 우리의 애국애족의 대응단과 주동적이며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얼어붙었던 북남관계에 개선의 훈풍이 불고 조선반도정세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류탄리 신경을 쓰면서 그에 훼방을 놓으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최근에도 아베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반공화국압살기운을 고취할 심산밑에 유럽의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북조선이 유럽전체를 위협》하고있다는 식로 황당무계한 나발을 불어대고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강화를 청탁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내각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을 비롯한 고위당국자들도 저저마다 나서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느니, 미국파의 면대밑에 《최대의 압박》을 가해 《북조선의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기존정책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느니 하고 뒤틀린 악담들을 련이어 내뱉으며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한편 언론들을 내세워 《북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불순한 선동을 일삼고 남조선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여론을 퍼뜨리며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에 쐐기를 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려고 고약하게 놀아대고 있다.

이런 속에 아베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코를 들이밀려 하는것은 명백히 시사해주는것이 있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에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현해탄너머에서 압력을 가하는것으로는 부족하여 직접 현지에까지 찾아와 북남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올림픽마당을 동족대결마당으로 만들려 한다는것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북남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면서 재침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의 못된 심보는 어디 갈데 없다.

이번에 아베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로 한것은 미국상전의 각본과 흔명에 따른것이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거듭되는 청탁에도 불구하고 어려가지 핑계를 대며 애매하게 놀아대던 아베의 태도가 돌변한것은 미국의 입김이 가해졌기때문이다. 일본을 내몰아 남조선당국을 《대북제재》강화와 3각공조의 쇠사슬에 단단히 얽어매놓으려는 미국의 계책에 따른것이 바로 아베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놀음이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아베가 자기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남조선당국을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리행에로 몰아대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아베가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와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오만한 자세를 드러내면서 일본대사관앞의 성노예소녀상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큰소리를 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아베일당이 저들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가 무슨 큰 선심이나 베푸는것으로 되는듯이 냄새를 피우면서 그 대가로 남조선당국에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리행을 강박하려 들것은 불보듯 뻔하다.

남의 집 경사에 축하의 타발은커녕 독기가 잔뜩 서린 칼을 들고 찾아오려는 아베일당의 망동이야말로 초보적인 윤리도덕도 없는 섬나라족속들의 후안무치한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북남관계문제에 제멋대로 간섭하며 사사하게 놀아댈수록 저들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이 덧쌓이고 조선민족의 반일감정만 더욱 폭발하게 될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을 망쳐놓으려고 미쳐날뛰며 재침책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라 설 하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 《반미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가자!》

남조선 여러 지역에서 미국의 긴장격화책동을 단죄하여 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3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반미반전투쟁이 일제히 전개되였다.

서울에서는 각계층 단체들의 참가하에 《평화올림픽 방해하는 미국의 전략무기배치반대와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평창올림픽 평화적개최 방해하는 미국의 전략무기배치 반대한다!》, 《전략무기배치규탄》 등의 프랑카드와 구호판들을 들고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서울민권련대 대표는 미국이 말로는 《남북대화를 지지한다.》, 《올림픽의 성공적개최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남조에 핵전략폭격기들을 전진배치하고 조선반도를 향해 핵항공모함을 출항시켰다고 밝혔다.

이것은 남북관계개선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에 따른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트럼프가 우리 민족문제해결에 훼방을 놓고있으며 그것은 올림픽경기대회이후에도 계속될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대중적인 반미반전투쟁을 전개하자고 호소하였다.

대학생진보련합 준비위원회 성원은 미국이 북의 변화된 전략적지위에 대해 여전히 무시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트럼프행정부가 북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재만 가하려 하고있으나 그것으로는 북을 통제할수도 바꿀수도 없으며 오히려 북을 자극할뿐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국민주권련대 공동대표는 《우리 민족에게 좋은것이 미국에는 공포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민족공조의 힘으로 이 땅에서 미국을 영원히 쓸어버려야 고 열변을 토하였다.

통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성원은 지난해 통산미군기지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상상을 초월하였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 기지전반이 얼마나 오염되였는지 알수 없다고 그는 토로하였다.

그는 기지내에서 탄저균실험을 불법적으로 하는 등 미군이 서울 한복판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의 정체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집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한 후 미군기지를 향하여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고 힘차게 웨쳤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부경련합, 국민주권련대 부산지역본부, 세균실험실폐쇄를 위한 주민모임 등 부산지역의 각계층 단체들은 부산항 8부두앞에서 미국의 전략무기배치반대와 세균무기실험실폐쇄를 위한 집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각종 전략무기들로 올림픽경기대회에 훼방을 놓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절규하였다.

부산에 세균무기실험실이 설치되고 미국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이 수시로 드나들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실험실과 미국의 핵무력입항을 위한 기지를 없애는 싸움에 함께 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남과 북이 함께 참가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미국이 갖은 수를 다해 재를 뿌리고 훼방을 놓으려 하고있지만 그럴수록 세계민심은 반미로 확고히 돌아서고있다고 하면서 《반미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구의 각계층 단체 성원들과 시민들은 《주한미군 나가라!》, 《평화올림픽 방해군 트럼프는 그 입 다물어라!》, 《남과 북은 통일, 미군은 철수》,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전술핵무기 배치반대》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미군기지앞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미국이 핵항공모함배치 등으로 조선반도평화를 가로막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유엔헌장에도 위반되는 《예방타격》을 운운하는것은 조선반도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그들은 항의하였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평화파괴행위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대미추종을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대구시민들은 미군기지앞에서 시위투쟁도 벌렸다.

남조선강원도 춘천의 시민들과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의 군사위협 반대한다》, 《대북제재동참 강요말라!》, 《남북화해협력분위기 방해하는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한다》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반미반트럼프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의 투쟁은 광주에서도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권력욕에 환장한 인간추물의 몰골

최근 남조선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놀음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는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가 자기의 불순한 정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리성을 잃고 헤덤비고있어 각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통합반대파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안철수의 독단과 전횡으로 하여 《국민의 당》 내부의 대립과 갈등은 최절정에 달하였다. 안철수가 당대표라는 자기의 직권을 악용하여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압적으로 내밀고 그에 격분한 통합반대파들이 정치적결별을 선언하며 신당창당에 정식 나서면서 《국민의 당》은 그야말로 완전히 제질 위기에 처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바른정당》 대표 류승민과 공모결탁하여 《희망의 미래》니, 《구태정치와의 전쟁》이니 하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걸고 《통합개혁신당》을 내오려고 꾀하고있는 안철수는 매일과 같이 두 당의 통합과 관련한 쑥덕공론을 벌리면서 자기의 정치적리속을 차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있다.

이에 격분한 통합반대파들은 안철수와 갈라져 새로운 정당을 내오기로 하고 그 준비사업에 나섰다. 그들은 신당의 이름을 민주평화당으로 확정하고 창당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바빠맞은 안철수는 통합반대파들이 신당을 창당하는것은 《용납할수 없다.》느니, 《해당행위》라느니 하면서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였다.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것은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노릇을 하자는것》이라고 헐뜯으면서 통합반대파들의 신당창당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으려고 발광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보수패당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안철수에게 이미 침을 뱉고 돌아선 통합반대파들이 금어들리 만무하다. 그들은 지난 1월 28일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창당절차에 착수하였다. 여기에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등 《국민의 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이 참가하였다.

악에 받친 안철수는 《정치테러행위》라느니, 《당파괴행위》라느니 하고 야단법석대면서 자기 졸개들을 내세워 통합반대파들에 대한 무더기징계놀음을 벌리였다. 안철수와 통합파괴거리들이 1월 28일 비공개당무위원회를 열고 통합반대파의 원들을 포함한 179명의 당원자격을 2년간 박탈한다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발표한것이다.

안철수의 이러한 징계소동은 통합반대파들의 더 큰 반발을 자아냈다. 그들은 안철수야말로 호남의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은 배신자이며 《국민의 당》을 해체에로 떠밀고있는것도 역시 안철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들은 안철수는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버리는 독재자이다, 파렴치한 안철수를 날려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신당창당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사태가 수습할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고 당의 분렬이 되돌리기 어려운것으로 되자 《국민의 당》의 중립파의원 5명은 안철수에게 전당대회전에 대표직에서 사퇴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권력욕에 사로잡힌 안철수는 그들의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더욱 열을 올리였다.

《국민의 당》의 통합파와 《바른정당》패거리들이 조작한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확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2월 13일 《통합개혁신당》창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합개혁신당》의 명칭을 정하기 위한 공모놀음을 벌려놓았다.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바른정당》과의 불순한 통합소동이 민심의 규탄을 받고 당내에서도 그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늘어나자 궁지에 몰린 안철수는 며칠전 또 하나의 계책을 꾸며냈다. 중립파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참가하면 2월 13일의 전당대회에서 《통합개혁신당》의 창당을 완료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것이다. 하지만 전당대회전에 사퇴할데 대한 중립파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제불장을 다 본 다음 사퇴냄새를 피우려는 안철수의 교활한 계책이 통할리 만무하다.

권력욕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은 아무리 치장하여도 그 본색을 절대로 감출수 없는것이다.

사분오렬되여 자멸의 길을 걷고있는 《국민의 당》의 운명이야말로 《새 정치》로 위장한 정치시정배인 안철수를 대표로 내세운 사이비정당의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남조선시민단체
미국과 보수세력의 방해책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가지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미국과 보수세력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 분렬적폐세력들이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평화적분위기에서 진행되는것을 방해하고있는 가운데 보수패거리들은 민족분렬을 통한 저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평화가 빨리 깨졌으면 좋겠다는 망발까지 줴치고있다고 성토하였다.

그들은 현 집권자가 북에 대한 보수세력들과 일부 언론들의 중상행위에 구애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조선반도주변에 배치한 모든 핵전략자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남북관계개선을 미국은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모든 국민들이 뜻과 힘을 합쳐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궁지에 몰린 부패왕초의 가련한 신세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역도가 감행한 특대형범죄행위들의 진상이 련이어 드러나 민심의 분노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리명박역도는 정보원특수활동비횡령사건과 엄청난 부정추문사건이 제기된 다스회사의 실제소유자문제 등으로 검찰당국의 수사대상이 되여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려우고있다.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을 비롯한 리명박역도의 핵심측근들은 검찰수사과정에 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심겨바치였으며 그것을 리명박과 그의 녀편네가 탕진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다스회사의 전 사장이였던자도 리명박의 지시로 다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실토하였다. 리명박역도의 졸개들과 친인척들도 다스회사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다름아닌 리명박이라고 까밝혔다. 이로 하여 다스회사는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줄곧 우겨대던 리명박역도가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였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검찰은 리명박의 소유로 되여있는 어느 한 건물의 사무실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역도의 범죄들을 립증할수 있는 다량의 청와대문서들을 찾아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리명박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이후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정계에서도 리명박이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철저히 사과해야 하며 역도의 부패범죄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리명박이 당국에 항거하여 골목성명을 내고 고향으로 도망쳤다가 다음날 검찰에 체포되여 서울로 끌려온 전두환의 신세에 처하게 되였다고 전하였다. 사실들은 덫에 걸린 쥐새끼나 다름없는 리명박역도의 가증한 최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라고 권력을 악용하여 온갖 범죄를 저지른 부정부패의 왕초가 덜미를 잡히게 된것은 필연이며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돌이켜보면 4대강사업, 《자원외교》, 언론탄압,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과 다스회사비밀자금사건, 정보원선거개입사건, 정보원특수활동비횡령사건, 민간인사찰은폐사건 등 리명박역도가 집권기간에 저지른 범죄행위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또 그 얼마나 큰것인가.

고간의 날알을 훔쳐먹는 쥐상을 해가지고 인민들의 혈세를 긁어내여 마구 탕진한 리명박역도야말로 하루빨리 오라를 지워 감옥에 처넣어야 할 특등범죄자이다.

그런데도 역도는 자기의 범죄증거가 날날이 드러난 지금까지도 범죄를 시인하고 순순히 죄고랑을 찰 대신 아닌보살하며 살구명을 찾아보려고 심복들과 공공이판을 벌리면서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뻔뻔스러움의 극치이며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이런 추악한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걸고들며 비호두둔해나서는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망동이다. 지금 이자들은 날날이 폭로되고있는 리명박의 범죄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하면서 역도와 저들에 대한 비난을 《색갈론》소동으로 무마시키려고 발광하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리명박역도의 구린내나는 사라구니밑에서 갖은 모략과 협잡행위를 하고 권력을 총발동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아온 공범자들이라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리명박역도의 BBK주가조작사건, 정보원선거개입사건, 싸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사건, 보수단체불법지원사건,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 등은 리명박역도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떨거지들이 감행한 범죄행위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것이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제아무리 리명박역도의 부패범죄를 싸고돌며 《색갈론》광풍으로 저들에게 쏠리는 비난여론을 눅잦히려고 발악하여도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당장 리명박을 구속하고 역도가 부정축재한 천문학적액수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악폐중의 악폐인 리명박역도가 정의의 심판을 받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목소리이다.

부패왕초 리명박역도를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여 준엄한 징벌을 가하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여기에 도전하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리명박역도와 같은 가련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친하의 흡혈귀이고 도저무리인 리명박역도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을 철저히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 정 철

죄악을 가리우려는 가소로운 몸부림

얼마전 박근혜역도에게 또 하나의 범죄혐의가 추가되였다. 역도가 지난 2016년 4월에 있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박계인물들을 당선가능성이 큰 지역의 《국회》의원후보로 나서도록 할 계책밑에 120회에 달하는 비법적인 여론조사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것이다. 결국 박근혜역도는 삼성뢰물수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대기업출연강요, 정보원특수활동비횡령 등에 이번 협의까지 합쳐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였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수 없다. 중형을 면해보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는 박근혜이지만 사실상 역도는 실오리만 한 희망도 가질수 없는 죄악의 궁지에 빠지게 되였다.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날이 갈수록 불어만 나는 박근혜역도의 범죄행위를 두고 남조선 각계는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도대체 범죄의 끝은 어디인가.》, 《이제 또 무슨 범죄사실이 드러날지 알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특등범죄자인 박근혜에게 하루빨리 극형을 선고하여 단호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목소리이다.

이런 속에 남조선의 한 언론은 박근혜역도에 대한 재판이 빠르면 이달안에 마무리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들은 박근혜역도에게 분분초초 비참한 종말의 시각이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폭정과 압제, 모략과 기만, 배불뚜기과 무정부패를 일삼으며 죄악의 신기록을 세운 박근혜역도가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더는 헤여날수 없는 비참한 파멸의 운명에 처한것은 당연한것이다.

그런데 교활하고 뻔뻔스럽기짝이 없는 박근혜역도는 아직까지도 정각에 달한 더러운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개꿈을 꾸면서 자기의 엄청난 죄악을 부인하는 요술을 피우고있다.

자기에 대한 구속기한연장결정에 반발하며 재판장에 나오는것을 거부하고 물 본 미친개처럼 지랄을 부려온 박근혜역도는 지금도 버티기놀음에 매달리고있다. 역도는 무릎관절이 어떻다느니, 허리아픔이 어떻다느니 하고 꾀병을 부리며 살구명수만 노리고있다. 그리고 고용변호사를 불러다놓고 징벌을 모면하기 위한 공공이판을 벌리는가 하면 《자기때문에 기업가들이 재판받는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라느니,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물어달라.》느니 하는 넋두리로 일관된 그 무슨 《의견서》라는것을 제출하여 여론의 동정을 사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다.

문제는 박근혜뿐이 아니라 한때 늙다리마녀의 치마폭에 매달려 잔명을 부지하던 국우보수패거지들까지 나서서 역도년의 《무죄석방》과 《정치보복중단》에 대해 고아대고 반동을 부리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모래로 물 막겠다는 격의 부질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쌓이고 쌓인 보수의 적폐를 철저히 청산할 때에만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자기들의 꿈이 실현될수 있다고 하면서 반보수투쟁을 계속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역도가 집권시기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들이 련속 드러나면서 력사의 죄인들에게 기어이 준엄한 징벌을 가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는 더욱 높아가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박근혜역도가 속이 빤드름히 들여다보이는 제 판거부놀음이나 벌리고 졸개들과 미리들 짜내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악한다고 하여 과연 살길이 열리겠는가 하는것이다.

박근혜역도가 력사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아무리 갖은 술수를 꾸미고 지랄발광을 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가 더이상 민중을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역도에 대한 신속한 처형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박근혜역도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리 홍 철

남조선대학생단체
보수언론의 외곡보도행위를 단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학생진보련합 준비위원회가 1월 31일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조선일보》의 외곡보도행위를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북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가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북측의 조치를 진정성이 없는 기만전략이라고 악의적으로 헐뜯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더우기 《조선일보》가 20대, 30대 청년학생들이 북을 반대하여 이어달리기식시위를 벌리고있다는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폭로하고 그들은 보수언론들이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조선일보》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청년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중지하고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시고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의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군은 최정예혁명강군, 무적필승의 혁명대오로 자라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었다.》

이것은 수십성상 강력한 군력으로 조국과 인민을 지켜주시고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여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이 터친 격찬의 목소리이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절절하게 품게 되는 갈망은 자체의 강력한 군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며 오직 위대한 령도자, 비범한 령장을 모실 때에만 이룩될수 있는것이다.

세계의 격찬속에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을 뿌리는 우리 나라의 가슴벅찬 현실은 위대한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벨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파나스 이와노브는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군건설령도는 세계정치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고 하면서 조선이 사회주의성새로 빛을 뿌리고 조선인민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된것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덕이라고 찬탄하였다.

어찌 이것을 벨가리아의 한 인사가 터친 격정의 분출이라고만 하랴.

지난해 12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행사에 참가한 로씨야국가회의 대의원 올레그 레베제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건설하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고있다. 현실은 군력이 강해야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낼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령활무쌍한 지략으로 조선인민군을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강군으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은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의 마음속에도 깊이 자리잡고있다.

그는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를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여왔다, 우리 당 최고리사회는 김정일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다고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란의 한 통신은 조선반도에는 반세기이상이나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때없이 조성되군 하였다, 만일 새로운 조선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류가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가장 파국적인 핵전쟁으로 되였을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신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게 되였다, 절세위인의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물리치시며 반제자주위업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건설에 쌓으신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는 먄마 미트 타르모솔란사 총사장의 심장속에서도 울려나왔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을 최정예혁명강군으로 키우시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속에서 뜨겁게 분출되였다.

몇해전 우리 나라를 방문한 꾸바혁명무력 군사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력사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령도로 조선인민군을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으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계속하여 그는 조선인민이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백승을 떨쳐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대표단 단장은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령장이시라고 하면서 군력강화에 쌓으신 그이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있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끄떡없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쳐물리칠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훌륭한 무장장비들을 갖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다.》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참관하고 자기의 소감을 터놓은 쎌낭군사대표단 단장의 길지 않은 이 말속에도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업적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칭송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어찌 이뿐이랴.

또 한분의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전두에 높이 모시여 더욱더 강대해진 조선인민군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끊임없이 차넘치고있다.

그 수많은 목소리들가운데서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이 터친 격정을 전하는것으로 글을 마감지으려 한다.

《김정은각하는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조선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백두산장군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박 예 경

대조선정책전환이 유일한 출로이다

미국내에서 대조선제재압박이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더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최근 정치전문웨브싸이트 《더 힐》, 경제전문방송 CNBC를 비롯한 미국언론들은 전고위관리들과 국제문제전문가들이 조선의 핵포기는 불가능하며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전하고있다.

미국회 상원 청문회에서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는 조선의 핵무력강화를 막을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선과 전쟁을 벌리는것은 큰 후과를 초래할것이다고 경고하였다. 전 미국무장관 슐쯔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면서 미국이 주의하여야 하며 빈소리에 불과한 위협은 자신을 파괴하는 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전 미국무성 부장관 아미타지 역시 미국이 조선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늦었다고 실토하였다.

한편 미국금융업자인 쏘로스는 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미국은 조선과 핵전쟁의 길로 가면서 갈등을 초래하고있다,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전쟁방지협정을 체결하는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의 주장들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1970년대 《미국외교의 대부》로 알려진 키신저는 《우리가 미칠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파괴력을 구비하고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게 한다면 상대는 겁에 질려 우리의 요구에 순응할것》이라는 《미치광이전략》을 제창한 인물로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그것을 반영하고 집요하게 강행하였다.

아미타지는 9.11사건후 아프가니스탄을 반대하는 미국의 《반테로전》에 파키스탄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공습을 받을것을 각오하라. 석기시대로 되돌아갈줄 알라.》고 협박까지 한 매과인물이다. 그도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퇴직후에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면서 못된 소리를 많이 하였다.

하다면 그들이 자기들이 앞장서서 강행해온 대조선정책에 의혹을 제기하고 그 전환을 요구하고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 대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국가핵무력완성으로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문제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실감하고 긍정하는 결론이다.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의 길로 떠민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몰아대다 못해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써넣고 올려놓고 핵전쟁도발에 미쳐날뛰였다.

우리가 핵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드리워있는 핵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낼수 없었고 미국의 증대되는 핵위협공갈속에서 민족의 운명도 지킬수 없게 되였다.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자위를 위하여 핵을 보유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가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핵독재를 키어이 끝장낼 결연한 의지를 안고 핵보유의 길로 억척같이 나아간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우리가 핵보유국이 된 후 미국은 세계제패전략의 총파산을 예감하고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총력을 집중해왔다.

특히 선임자들로부터 물려 받은 숙제를 유산으로 넘겨받은 트럼프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겠다고 광분하였다. 그 해결책을 《최대의 압박》정책에서 찾은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총발동하여 대조선군사적위협과 고립압살의 도수를 사상 최대로 높였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들을 더욱 대대적으로 들이밀며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트럼프는 초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체면마저 집어던지고 《화염과 분노》, 《완전파괴》와 《절멸》과 같은 망발들을 마구 제쳐대며 광태를 부렸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초강도경제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도 각종 혁운반수단들과 초강력열핵무기시험을 성과적으로 단행하였다. 우리 국가의 총적지향과 전략적목표가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총파산의 낭떠러지에 놓이게 되였다.

로씨야잡지 《국방》책임주필이 TV대담에서 조선을 핵무기와 로케트를 만들도록 떠민것은 바로 미국이다, 제재로 압박하는것은 무의미하다, 새로운 정치적해결방향을 찾는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총파산을 면할수 없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조미대결의 결말이 명백해진 오늘날에 와서까지 트럼프패거리들이 낡아빠진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리고있는데 있다. 년초부터 우리의 핵무력강화를 가로막고 보유한 핵을 완전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얼마전에는 또다시 단독추가제재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전야에 조선반도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량집결시키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다 낡아빠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가동시키며 핵전쟁도발에서 출로를 찾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출로가 아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 길로 나간다면 파국적종말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핵보유국을 건드리는것이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미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기꺼이 상대해줄 막강한 능력과 비상한 각오, 불굴의 의지를 가진 유일무이한 국가이다.

때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미국은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는것이 미국의 처지에 알맞는 처방이다.

미국이 실현불가능한 헛된 꿈을 운운하며 대조선압박책동에 계속 매달릴수록 우리의 핵강국의 지위를 더욱 굳혀놓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리 현 도

시급히 정신병동에 가두어야 할 미치광이

얼마전 백악관울타리를 뛰쳐나온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미국회의 본회의장연단에 게바라울라가 《년두교서》라는것을 발표하는 광대극을 연출하였다.

자화자찬과 호언장담으로 일관된 그 장광설이 트럼프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불상식한 인간이며 어리석고 미련한 대통령인가를 유감없이 과시한 망언투성이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트럼프가 무려 7분동안이나 구린 입, 지린 입을 마구 놀려대며 우리 공화국을 미친개처럼 헐뜯어댄것이다. 이 망녕든 늙다리는 우리가 《무모한 핵미싸일추구》로 미국본토를 위협하고있다고 죽어가는 소리를 질러대며 감히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타락》이니, 《억압》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악담으로 헐뜯다 못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우리의 영상에 먹칠해보려고 진수작질을 해댔다.

《핵위협의 본질》을 리해해야 한다고 웨쳐대며 인간쓰레기들을 《소개》하는 추태를 부렸는가 하면 그 무슨 《자유》를 선동하는 망동까지 저질렀다.

트럼프의 악담질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정치적도발이고 깡패두목의 횡포한 공갈인 동시에 정상적인 사유기능이 마비된 미치광이의 히스테리적광기이다.

이로 하여 지금 미국은 물론 세계도처에서 욕동불량배인 트럼프의 연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짓과 허풍으로 일관된 잠꼬대라는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둔 주체조선의 핵무력앞에 아메리카제국의 폭제의 력이 무뎌하게 된 엄연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최고의 압박작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있는 트럼프가 가련하기 그지없다.

우리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해 조미대결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전략적구도가 완전히 바뀌우게 되였으면 대세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생존전략을 강구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일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트럼프는 《압박》이라는 망가진 방아로 흘러간 물을 되돌리겠다고 기광을 부리고있으니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볼 안목도 없고 가련해진 제 처지를 인정할 용기도 없는 작자를 두고 어찌 가긍하다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더욱 조소를 자아내는것은 《최고의 압박작전》에 사용할 새로운 무기라도 찾아낸듯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거들며 독설을 뿜어댄것이다.

인권유린왕초인 자기의 흉물스러운 꼴과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악명떨치는 미국의 썩어빠진 현실에는 눈을 감고 《인권재판》인양 흰목을 빼는 트럼프의 꼴은 차마 눈뜨고 보아주기 역겨울 정도이다.

극단적인 인종차별과 인간증오사상이 만연한 속에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총기류범죄로 인한 사상자가 근 5만명에 달한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미국이야말로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이 증명되고도 남는다.

천하의 개망종이며 패륜광인 트럼프가 제아무리 존엄높고 정의로운 우리 제도의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악담질하여도 사기협잡과 성추행 등 온갖 죄악으로 찌든 더러운 몸통에서 풍기는 악취를 막을수 없으며 최후멸망에로 줄달음치는 미국의 운명을 돌려세울수 없다.

우리는 무쉬의 《악의 축》망발을 상기시키는 트럼프의 악담속에 《코피전략》이라는 군사적모험을 감행하기에 앞서 도발의 명분을 쌓고 침략의 사전포석을 깔아놓으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웅크리고있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 정계뿐아니라 군부안에서까지도 각종 추문으로 탄핵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백만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얼간망동이 트럼프는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 있다.

그 무슨 《코피》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리는 순간 트럼프자신의 사동뼈가 부러지고 아메리카제국이 지옥으로 화하면서 가뜩이나 짧은 미국의 력사가 영영 끝장나게 된다는것이다.

미치광이 트럼프는 과거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것이라는 헛나발을 불기 전에 무지한 자기보다 백배나 나았던 선임자들이 무엇때문에 우리와 맞섰다가 참패의 고배를 마셨는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랭철하게 돌이켜보아야 한다.

기울어져가는 악의 제국의 기둥에 제 손으로 도끼질을 해대며 흉악을 부리는 트럼프를 굳이 말릴 필요는 없을것이다.

제 집안도 불안케 하고 세상도 소란케 하는 트럼프를 시급히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정신병동에 가두어놓는것이야말로 미국을 위해서나, 세계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나 유일한 처방이다.

박 철 준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트럼프의 《년두교서》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1월 30일 저녁 미국회 상하량원 의원들이 모인 앞에서 《년두교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년두교서》는 미국헌법에 따라 미국대통령이 매해 년초에 국회 상하량원 의원들앞에서 국가의 형편과 행정부의 대내외정책방향에 대하여 밝히는 연설이다.

트럼프는 약 1시간 20분동안에 걸쳐 집권 1년간의 치적과 앞으로의 《정책구상》에 대하여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는 《미국제일주의》구호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와 이주민배척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핵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힘의 우세로써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경쟁적수들을 제압하며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심지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걸고들면서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 사회제도를 헐뜯는 악담을 늘어놓았으며 우리 공화국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공세를 벌리고있다느니, 《미국식결단력》으로 《북조선위협》에 대처하겠다느니 하는 주제넘은 망발을 마구 쏟아냈다.

이번 《년두교서》발표에 10여명의 미국회 의원들이 트럼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참가하지 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은 트럼프의 《년두교서》발표를 《미국식자화자찬대회》라고 비하하면서 트럼프와 그의 《미국제일주의》정책을 야유조소하고있다.

지어 미국언론들과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극수주의적이며 인기주의적인 연설을 하였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년두교서》를 말은 번지르르하나 실속없는 연설로, 새로운 재난을 불러올수 있는 불길한 징조로 평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서 쓰딸린그라드격전승리 75돐 기념

쓰딸린그라드격전승리 75돐을 맞으며 로씨야의 볼고그라드에서 2일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이날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마마예브언덕에 있는 《영원한 불길》기념비앞에 화환을 진정하고 희생된 붉은군대 군인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이어 경축음악회에서 연설한 그는 쓰딸린그라드를 방위한 전세대들의 위훈을 따라배울것을 호소하였으며 새 세대들이 위대한 인민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도시광장에서 경축열병식이 있었다.

열병식에는 1 400명의 장병들이 참가하였으며 60여대의 전투기술기재들과 50대의 비행기와 직승기, 《이스깐데르》기동전술미싸일종합체, 《C-400》대공미싸일종합체 등이 동원되였다.

한편 도시의 여러곳에서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과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으며 볼가강기슭에서는 축포가 울렸다.

로씨야 미국의 도발적인 《크레믈리보고서》를 규탄

미국에서 로씨야를 반대하여 작성된 도발적인 《크레믈리보고서》라는것이 발표되여 로씨야정부와 정계에서 강한 반발과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미재무성은 210명의 로씨야대통령행정부, 정부, 련방령의회, 국가회의 등 지도부성원들과 주요회사 및 은행책임자들을 거들인 《크레믈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정부는 미국의 보고서를 자기 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제재위협으로, 용납할수 없는 행위로 단호히 규탄배격하고있다.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은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가지고 로씨야를 계속 위협하는것은 어리석은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보고서에 자기 이름이 없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야유하고 로씨야는 보복조치, 심각한 조치를 위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수상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는 미국의 보고서가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할것이며 새로운 제재에로 이어질 때에는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련방회의 성원들도 《크레믈리보고서》를 발표한 미국의 처사를 로씨야내정과 대통령선거에 대한 로골적인 간섭행위로, 사회에 불안정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락인단죄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모든 국가간 관계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고안해낸 제재들은 로씨야의 정치로선을 변화시키거나 내부분렬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사회의 단합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망상병은 환자가 자기 병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 특별히 고치기 힘든것》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들은 《크레믈리보고서》는 전세계에 《로씨야위협》병을 만연시키려는 미국인들의 무능력만을 증명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회의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크레믈리보고서》발표이후 계획하였던 미국방문을 취소하였다.

한편 모스크바시장은 미국이 지금까지 로씨야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관계가 아무리 악화되고 첨예하였던 시기에도 《크레믈리보고서》와 같은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의 행위는 로씨야를 분렬시키는것이 아니라 더욱 단합시킬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미국주재 로씨야대사는 제재는 궁지에 빠져드는 길이며 제재로 로씨야를 놀래울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백인지상주의자들의 준동 우심

미국에서 백인지상주의자들의 인종주의선전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1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밝힌데 의하면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워싱톤시와 떼사스,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44개 주의 200여개 대학들에서 그러한 행위가 340여차례나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그것은 그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3배로 증대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일본당국 조선반도정세를 구실로 대피훈련소동에 광분
일본주민들의 항의기운 고조

일본당국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구실로 미싸일대피훈련소동에 광분하고있다.

지난해 4월 당국은 《미싸일락하시 대응방안》이라는것을 발표하고 전국에 미싸일대피훈련과 전국경보체계에 의한 정보전달훈련을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지난해에만도 전국각지에서 그와 같은 훈련이 68차례나 진행되였다고 한다.

올해에 들어와 카고시마현과 도꾜도의 중심지에서 미싸일대피훈련이 강행되였다.

일본당국이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 대피훈련소동은 《북조선위협론》을 부추김으로써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일본의 군국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제일동포들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적의와 차별, 민족배타주의의 확대에로 이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국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가나가와현에서 당국의 대피훈련소동을 반대하는 항의행동이 련일 벌어졌다.

당국이 가나가와현에서도 대피훈련을 벌리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40개 단체가 속한 《(가나가와현은 전쟁위기를 부추기지 말라!) 시민행동》의 성원들은 1월 24일 현지사에게 《(국민보호 싸이렌 일제재생훈련)의 중단과 (헌법존중옹호의무)의 리행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1월 25일에는 당국의 군국화책동을 규탄하는 글들이 씌여진 프랑카드와 구호판 등을 들고 집회와 시위행진을 하였으며 현정부청사를 둘러싸고 항의행동을 벌렸다.

참가자들은 《이 훈련의 본질에는 일본정부의 헌법개악의도가 있다. 이런 풍조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여론이 어지럽이 전쟁일색으로 변해갈것이다.》, 《아베는 대화를 성실으로 삼아야 한다.》, 《조선의 핵미싸일시험발사는 미국의 위협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북조선위기〉를 부추겨 전국적인 훈련을 지시하고있다. 결코 용납할수 없다.》, 《이 훈련은 쓸데없이 사람들의 위기감과 적대감을 부추길뿐이다.》, 《가나가와현에서는 간또대진재때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한 력사가 있다. 우리는 위기감과 적대감을 선동한 끝에 있는 위험을 강하게 느끼고있다.》고 항변하였다.

그들은 또한 인터네트를 리용한 항의서명활동도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물론 세계각국에서도 훈련을 반대하는 수많은 메세지를 보내오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프가니스탄에서 벌리고있는 《반테로전》에서 실패를 거듭하고있는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그 책임을 파키스탄에 넘겨씌우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트위터에 우리가 파키스탄에 오래동안 막대한 《원조》를 주었으나 거짓과 기만밖에 차례진것이 없다, 우리를 속이고 머저리로 보면서 오히려 테로분자들에게 안전한 은신처만을 제공하고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것이다는 불만을 잔뜩 터놓았다. 그로부터 며칠후 미국무성은 파키스탄에 대한 《안보원조》를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가 모욕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파키스탄을 비난한것은 단순히 화풀이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이 나라에 대한 《원조》를 더이상 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9.11사건발생후 미국은 《원조》를 미끼로 파키스탄을 《반테로전》에 끌어들였다. 미국이 얼마 되지도 않는 《원조》를 가지고 생색을 내군 하여 파키스탄—미국관계는 드문히 곡절을 겪어왔다.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있는 트럼프집권시기에 와서 미국은 파키스탄에 주던 《원조》를 아예 잘라버리려 하고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을 실컷 부려먹고 내쫓는 하인처럼 대하고있다.

파키스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일이다. 파키스탄외무성은 자국주재 미국대사를 호출하여 트럼프의 날강도적인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 나라 외무상은 미국과는 더이상 《동맹관계》가 아니라며 명백한 선을 그었다.

파키스탄의 협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정권을 손쉽게 제거하지 못하였을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파키스탄의 수고에 대하여 다 잊어버렸다. 수시로 머리에 떠오르고있는것은 제 주머니의 돈이 파키스탄에 공짜로 흘러들어간다는것뿐이였다. 쩍하면 돈주머니를 내흔들며 이 나라에 자들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내리먹였는가 하면 파키스탄의 협력이 부족하여 《반테로전》에서 성과가 이룩되지 않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기도 하였다.

앞에서는 파키스탄을 자들의 《동맹국》이라고 말하였지만 실상에 있어서 미국은 이 나라를 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한갖 꼭두각시로밖에 치부하지 않았다.

이번에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립장은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

자들에게 필요할 때에는 금살 굳게 놀며 씨먹다가도 거치장스럽다고 생각될 때에는 힘으로 억누르거나 가차없이 차버리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는것을 파키스탄은 다시한번 느끼고있다. 미국의 강박에 고분고분하다가는 국가주권이 침해당하고 존엄이 유린당할수 있다는것을 느낀 파키스탄은 반발해나서고있다.

미국과 맺었던 방위 및 정보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지한다고 단호히 선언해나섰다.

일이 이쯤되자 바빠난것은 미국이다. 자들의 으름장에 주눅이 들줄 알았던 이 나라가 오히려 랭랭한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이다.

파키스탄이 좀더 강경한 태도로 나오게 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략실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여있다. 전전긍긍하던 끝에 미국은 《관계개선》을 하자고 파키스탄에 삶의 웃음을 짓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성 차관보대리가 파키스탄에 날아들었다. 그는 이 나라 고위정객들을 만나기 바쁘게 별의별 요설을 다 늘어놓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데서 파키스탄과 협력하려는 미국의 희망을 전달한다.》느니, 《지역에서 중요한 나라인 파키스탄의 지원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략실현에서 성과를 거두는데 절실하다.》느니 하며 낯간지럽게 놀아댔다. 그러면서 쌍방이 정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횡설수설해댔다.

한마디로 저들의 아프가니스탄전략실현을 위해 파키스탄이 필요하다는것이다. 그야말로 등치고 간빼먹는 수작이다.

미국이 침발린 소리를 늘어놓아도 파키스탄은 경계감을 풀지 않고있다.

얼마전 파키스탄외무상은 미국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심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시기 자기 나라가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여왔다고 하면서 력사는 미국을 참부로 믿지 말것을 가르쳐주고있다고 하였다.

이번 미국무성 하급관리의 파키스탄행각을 두고 분석가들은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량면술책에 각성을 높일데 대해 강조하고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저들의 《원조》에 매여 살아가는 하인처럼 여기면서 하대하는 한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되는것은 피할수 없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악화되는 파키스탄—미국관계

7-810209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